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 비교연구: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김 보 경¹⁾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안 지 영³⁾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15명을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총 96명)과 일반 아동(총 80명)을 선별하여 이들의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상호적 친구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Parker와 Asher(1993)의 친구관계 측정(Friendship assessments)을, 사회적 행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와 Booth-LaForce, Burgess(2006)가 개발한 학급놀이 확장판(Extended Class Play: ECP)을, 친구관계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은혜, 고운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χ^2 검정과 t 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분석결과, 수줍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상호적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해 대체로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며,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수줍음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적 친구를 둔 아동의 친구관계 질은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대체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일반 아동이 수줍은 아동에 비해 친구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수줍은 아동, 일반 아동, 상호적 친구유무,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

1)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아동학 전공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psy@ewha.ac.kr)

3)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I. 서론

친구관계는 어린 시기부터 형성되나, 아동기 후반이 되면 아동들은 특정한 한 명의 아동과 밀접하고 친밀한 친구관계(best friendship)를 형성하게 된다(Berndt, 1996).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절친하다고 지각하는 상호적 친구는 일반적인 친구보다 아동의 발달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rtup(1995, 1996)은 친구관계의 기능으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장을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고 성인기 이후 여러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Bukowski와 Hoza(1989)는 친구관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고, 아동에게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친구관계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기능을 하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 습득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또래관계 연구들은 주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신주혜, 1998; 윤미경, 1998; Asendorpf, 1990; Ladd & Troop-Gordon, 2003) 수용되지 못하는(Parker & Asher, 1993) 아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서 집단 내에서의 또래 수용도나 또래 지위가 아동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여 왔다.

한편, 근래에 이르러 또래관계를 연구하는 국외학자들의 관심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나 또래 수용정보보다는 아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친구관계 양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Berndt, 1996; Ladd & Kochenderfer, 1996).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내 연구에서도 친구관계의 질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친밀한 친구관계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이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문은정, 심희옥, 2001; 이은혜, 김정은, 오원정, 2001).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친구관계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적 특성 중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줍음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에 초점을 두어 친구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적어,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양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수줍은 아동은 긍정적인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받는 기회가 적고(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또래나 교사의 부정적인 지각이나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편, 자아존중감이 낮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도현심, 정승원, 1997;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는 점에서 발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와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들은 수줍은 아동과 그들의 친구 간 행동특성의 유사성 또는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에 따른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 간 차이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다(김보경, 박성연, 2009; 신유림, 2007;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특히 수줍은 아동에 관한 김보경, 박성연(2009)의 연구는 수줍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사이에 친구관계 양상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축된 행동인 수줍음은 사회적인 위축행동(withdrawn behavior)과 혼용되기도 하나(Asendorpf, 1990)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수줍음이 더 많이 사용되며, 특히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또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한편, 또래가 접근해도 비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수동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기(박성연, 2008)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구 수나 사회관계망이 적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수줍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과묵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 거부나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Fordham & Stevenson-Hinde, 1999) 볼 때, 수줍은 아동은 친밀한 또래관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경험하지 못하고(Rubin et al., 2006) 오히려 심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수줍은 아동일지라도 서로 서로가 친밀하다고 인식되는 상호적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보경과 박성연(2009)은 수줍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상호적 친구(즉, 서로 간 친한 친구로 지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낮고,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덜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친구유무에 따른 수줍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신유림(2007)의 연구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거부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해 봄으로써 수줍은 아동에게 친밀한 친구관계가 주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로 친구 유무나 친구 수 또는 친구관계의 질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왔다(Parker & Asher, 1993). 이에 비해 Hartup(1996)은 친구관계의 차원을 친구 유무 또는 수, 아동의 행동특성,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2001) 또한 친구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구 유무나 수뿐 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여 친구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ubin 등(2006)의 연구와 Hartup(1996)이 제시한 친구관계의 세 가지 차원인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을 포함하여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친구 유무와 관련하여 볼 때,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 유무나 친구 수를 비교한 몇몇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측정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

고하고 있다. Parker와 Asher(1993)는 일반 아동의 70% 가량이 상호적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 유무를 비교한 Rubin 등(2006)은 수줍은 아동의 65%, 일반 아동의 70%가 상호적 친구를 가지고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add와 Burgess(1999)도 수줍은 유아와 일반 유아의 친구 수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신유림(2007)의 연구에서는 수줍은 아동의 28.5%, 일반 아동의 39.3%가 상호적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상호적 친구를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는 친구의 수나 친구유무에 대해 각 연구자가 취한 ‘친구’의 조작적 정의나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줍음이나 공격성 등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일반적으로 친구 유무나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공격성이 높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의 행동특성은 친구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묵하며 행동 억제적인 행동특성이나 소극적이거나 반응적이지 않은 행동특성 역시 친구로서 매력이 없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같은 맥락에서 수줍은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나 또래 거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또래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못한다(Parker & Asher, 1993). 그러나 수줍은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 유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Rubin 등(2006)에 의

하면, 5가지 사회적 행동특성(또래 괴롭힘, 공격성, 인기도, 친사회적 행동, 수줍음) 중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고 사회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수줍은 아동은 친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친구관계와 관련된 세 가지 차원(Hartup, 1996) 중 친구관계의 질은 정서적 안정감이나 신뢰감 등과 같은 긍정적 기능과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부정적 기능,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Rubin 등(2006)에 의하면,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의 질 6개 하위영역(교제와 오락, 인정과 보살핌, 도움과 충고, 친밀감, 갈등과 배신, 갈등해결) 모두에서 친구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하였다. 신유림(2007) 또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했을 때 친구관계의 질 4개 하위영역(갈등 해결, 지원하기, 동료애, 친밀감) 중 갈등 해결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상호적인 친구로부터 지원을 덜 받고, 동료애나 친밀도 정도가 낮다고 지각하였다. 즉, 위의 두 연구는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 아동보다 낮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호적 친구가 있는 경우에도 과연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친구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수줍은 아동과 수줍지 않은 일반 아동이 상호적 친한 친구 유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호적 친구가 있는 경우 이들의 사회적 행동특성이나 친구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상호적 친구 유무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은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 관계의 질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총 415명(남아: 194명, 여아: 221명)으로부터 선별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총 1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Parker와 Asher(1987)가 보고하였듯이 학령기 아동에게 친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친구 또는 친구가 아닌 아동에 대한 행동의 차이와 친구관계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Rubin 등(2006)의 연구 분류대상 기준을 기초로 학급놀이 확장판(Extended Class Play) 5개 하위영역 중 수줍음(4문항)과 공격성(7문항) 점수를 기초로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Rubin 등(2006)의 기준에 따라 수줍은 아동은 수줍음 점수 상위 33%, 공격성 점수 하위 50%에 속하는 아동으로, 그리고 일반 아동은 수줍음과 공격성 점수 모두 하위 50%에 속하는 아동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준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상 분류기준에 부합된 수줍은 아동은 연구대상자 총 415명 중 96명(남아: 49명, 여아: 47명)이었으며, 일반 아동은 총 80명(남아: 37명, 여아: 43명)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해서는 상호적 친구 유무,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척도는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상호적 친구 유무

상호적 친구란 친구관계를 맺는 두 아동이 상호 선택을 한 경우로서, 자발적이며 친밀한 친구관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친구관계 측정(Friendship Assessment)과 그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 아동에게 학급 내에서 친한

친구를 3명 선정하게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3명을 잘 살펴보고, ‘가장 친한 친구’ 1명 선정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아동이 가장 친한 친구로 최종 지명한 아동이 대상 아동을 친한 친구목록 3명 중에 포함시켰을 경우를 상호 선택에 의한 친구관계인 상호적 친구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행동특성(ECP)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친구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Masten, Morison과 Pellegrini(1985)의 학급놀이 수정판(Revised Class Play: RCP)에 기초하여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와 Booth-LaForce, Burgess(2006)가 개발한 학급놀이 확장판(Extended Class Play: ECP)을 번안하여 사회적 행동특성을 측정하였다. ECP는 총 30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인 또래 괴롭힘(8문항), 공격성(7문항), 인기도(5문항), 친사회적 행동(6문항), 수줍음(4문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는 아이”, “다른 아이들에게 심술궂다는 말을 듣는 아이”(또래 괴롭힘), “쉽게 화를 내는 아이”, “싸움을 많이 하는 아이”(공격성), “모든 아이

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아이”,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는 아이”(인기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이”, “놀이할 때 공평하게 행동하는 아이”(친사회적 행동),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조용히 말하는 아이”, “좀처럼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아이”(수줍음)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측정 방법은 동일학급 내, 동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 지각에 의한 보고이며, 각 아동에게 학급 아동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배부한 후, 각 문항에 해당하는 동성의 학급 친구를 1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행동특성의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또래 괴롭힘 $\alpha=.87$, 공격성 $\alpha=.87$, 인기도 $\alpha=.89$, 친사회적 행동 $\alpha=.82$, 수줍음 $\alpha=.88$ 이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점수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친구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혜, 고운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즉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

표 1.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점수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하위영역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M(SD)
또래 괴롭힘	0~최대지명 수	0~58	7.73(11.86)
공격성	0~최대지명 수	0~11	1.16(1.72)
인기도	0~최대지명 수	0~33	2.57(4.15)
친사회적 행동	0~최대지명 수	0~37	8.27(8.72)
수줍음	0~최대지명 수	0~45	10.14(9.65)

주)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소 지명수에서 최대 지명수까지임.

감으로 구성되며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구체적 내용과 예를 살펴보면, 긍정적 기능은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정서적 안정’으로 “네가 속상해 할 때 ○○는 너를 위로해 주니?”,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는 “서로 자주 못 만나도 ○○는 너의 친구로 남을 거라 생각하니?”,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 주는 ‘도움’은 “네가 필요로 할 때 ○○는 네 부탁을 들어주니?”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의 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은 “너는 ○○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은 “○○는 너에게 똑똑하다고 말해 주니?”, 다음으로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교제의 즐거움’에는 “네가 속상해 할 때 ○○는 너를 위로해 주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부정적 기능에는 의견의 불일치, 다툼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갈등’으로 “너는 ○○와 말다툼을 하니?” 등과 같은 문항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경쟁’으로 “너는 ○○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니?”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하며 “너는 ○○와 친구라서 행복하니?”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측정 방법은 아동이 지명한 ‘상호적 친구’ 한 명에 대해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척도의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아주 조금 그렇다’(1)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기능과 만족감은 높게, 부정적 기능은 낮게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정서적 안정 $\alpha=.90$, 신뢰 $\alpha=.89$, 도움 $\alpha=.77$, 친밀감 $\alpha=.83$, 인정 $\alpha=.82$, 교제의 즐거움 $\alpha=.84$ 이고, 갈등과 경쟁은 각각 $\alpha=.80$, $\alpha=.86$,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alpha=.85$ 이다.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455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자료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한 설문지 40부를 제외한 415부를 연구대상인 수줍은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집단을 선별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학급놀이 확장판(ECP)의 각 문항에 대해 또래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학급별, 성별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한 후, 아동별로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표준점수(Z-score)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 χ^2 검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 유무

연구문제 1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 유무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

표 2.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상호적 친구유무

		전체 (n=176)	수줍은 아동 (n=96)	일반 아동 (n=80)	df	χ^2	p
친구有	빈도	128	76	52	1	4.415	.036*
	기대빈도	128	69.8	58.2			
친구無	빈도	48	20	28			
	기대빈도	48	26.2	21.8			

*p<.05

표 3.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유무와 성차

	수줍은 아동						일반 아동					
	전체 (n=96)	친구有 (n=76)	친구無 (n=20)	df	χ^2	p	전체 (n=80)	친구有 (n=52)	친구無 (n=28)	df	χ^2	p
남아	49	38	11	1	.158	n.s	37	26	11	1	.840	n.s
여아	47	38	9				43	26	17			

수줍은 아동 96명 중 총 76명, 즉 수줍은 아동의 79.2%가 상호적 친구가 있고, 일반 아동 80명 중 총 52명, 즉 일반 아동의 65%가 상호적 친구가 있었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상호적 친구가 있는 아동이 상호적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 유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아동에 비해 수줍은 아동이 상호적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chi^2=4.415$, $df=1$, $p<.05$).

또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남아와 여아 간에 상호적 친구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수줍은 아동($\chi^2=.158$ $df=1$, n.s.)과 일반 아동($\chi^2=.840$ $df=1$, n.s.) 모두에서 상호적 친구 유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t=3.238$, $df=123$, $p<.001$), 수줍음($t=7.174$,

표 4.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¹⁾

사회적 행동특성	전체(n=125)			남아(n=64)			여아(n=61)		
	수줍은 아동 일반 아동		<i>t</i>	수줍은 아동 일반 아동		<i>t</i>	수줍은 아동 일반 아동		<i>t</i>
	(n=76) <i>M(SD)</i>	(n=49) <i>M(SD)</i>		(n=38) <i>M(SD)</i>	(n=26) <i>M(SD)</i>		(n=38) <i>M(SD)</i>	(n=23) <i>M(SD)</i>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	.77(1.22)	.63(1.18)	.647	.73(1.32)	.53(.76)	.687	.81(1.31)	.73(1.54)	.223
또래 괴롭힘 (피해행동)	5.57(9.78)	1.02(1.28)	3.238***	7.39(12.9)	.73(.77)	2.617*	3.76(4.48)	1.34(1.64)	2.477*
공격성	.90(1.06)	1.38(2.39)	-1.531	.86(1.14)	1.07(1.32)	-.672	.94(.98)	1.73(3.20)	-1.421
인기도	2.68(4.56)	4.89(5.83)	-2.372*	3.76(6.02)	4.30(5.48)	-.368	1.60(1.86)	5.56(6.25)	-3.658***
친사회성	6.64(7.16)	5.30(4.09)	1.188	8.21(8.92)	4.65(3.83)	1.912	5.07(4.40)	6.04(4.33)	-.834
수줍음	9.71(9.13)	.32(.47)	7.174***	9.55(9.88)	.38(.49)	4.712***	9.86(8.44)	.26(.44)	5.432***

* $p < .05$, *** $p < .001$

$df=123$, $p < .001$)과 인기도($t=-2.372$, $df=123$, $p < .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인기는 낮으며 수줍음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남아의 경우,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t=2.617$, $df=62$, $p < .05$)와 ‘수줍음’($t=4.712$, $df=62$, $p < .001$)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남아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남아에 비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많이 받고 수줍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반면 여아의 경우,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t=2.477$, $df=59$, $p <$

.05), ‘인기도’($t=-3.658$, $df=59$, $p < .001$), ‘수줍음’($t=5.432$, $df=59$, $p < .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여아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여아에 비해 수줍음 정도가 높고,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낮으며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표 5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아동들은 수줍은 아동이나 일반 아동 모두 대체로 친구관계의 질 중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나 ‘교제의 즐거움’을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에 부정적 기능인 ‘갈등’이나 ‘경쟁’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며, 다만 긍정적

1) 일반 아동 52명 중 불성실한 답변과 설문지의 누락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49명임.

표 5.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친구관계의 질		전체(n=125)			남아(n=64)			여아(n=61)			
		수줍은	일반	t	수줍은	일반	t	수줍은	일반	t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n=76)	(n=49)		(n=38)	(n=26)		(n=38)	(n=23)		
		M(SD)	M(SD)		M(SD)	M(SD)		M(SD)	M(SD)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3.05(1.84)	2.84(.80)	.842	2.97(2.48)	2.56(.84)	.834	3.13(.90)	3.08(.65)	.252	
	신뢰	3.06(1.48)	3.11(.74)	-.218	3.04(1.98)	3.12(.85)	-.184	3.08(.77)	3.10(.65)	-.115	
	도움	2.71(.74)	2.98(.69)	-2.052*	2.59(.61)	2.87(.78)	-1.517	2.83(.84)	3.08(.59)	-1.365	
	친밀감	2.60(1.07)	2.69(.76)	-.559	2.17(1.17)	2.43(.74)	-.996	3.01(.79)	2.93(.70)	.418	
	인정	2.50(.79)	2.64(.78)	-.933	2.20(.74)	2.40(.81)	-1.001	2.79(.75)	2.85(.70)	-.289	
	교제의 즐거움	3.26(.79)	3.38(.59)	-.972	3.11(.78)	3.30(.61)	-1.011	3.40(.80)	3.46(.58)	-.340	
부정적 기능	갈등	1.62(.55)	1.59(.52)	.252	1.60(.54)	1.65(.61)	-.310	1.63(.57)	1.54(.42)	.707	
	경쟁	1.62(.67)	1.81(.86)	-1.374	1.52(.53)	1.82(.92)	-1.552	1.72(.78)	1.81(.81)	-.428	
친구에 대한 만족감		만족감	3.41(1.21)	3.40(.56)	.087	3.33(1.50)	3.29(.56)	.148	3.49(.76)	3.50(.56)	-.048

* $p < .05$

기능 중 ‘도움’($t = -2.052$, $df = 120$, $p < .05$)의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해 상호적 친구로부터 도움을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과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의 자기 보고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415명을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n = 96$)과 일반 아동($n = 80$) 총 176명을 선별하고, 각 아동 집단의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아동 및 남아,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χ^2 검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각

각을 대상으로 서로 친한 친구로 지각하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지 그 유무를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수줍은 아동 96명 중 총 76명인 79.2%가 상호적 친구가 있고, 일반 아동은 80명 중 총 52명, 즉 65%가 상호적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상호 친하다고 지명한 친구가 있는 아동이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아동의 대략 70%가 상호적 친구가 있으며(Parker & Asher, 1993), 수줍은 아동의 65%, 일반 아동의 70%가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Rubin et al., 2006). 반면, 신유림(2007)은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상호적 친구가 없는 집단이 상호적 친구가 있는 집단보다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마다 상호적 친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자에 따라 아동에게 상호적 친구 유무를 측정할 때 먼저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 1명 또는 2~3명을 지명하게 한 후, 그 중 최종 지명한 아동이 대상 아동을 친구로 상호 지목한 경우 상호적 친구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 친구를 규정하기 위해 Parker와 Asher(1993)의 방식에 따라 우선 친한 친구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최종 지명한 아동과 대상 아동이 상호 지목했을 경우를 상호적 친구관계로 보았으며, 그 결과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의 비율이 각각 79.2%, 65%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은혜(1999)와 신유림(2007)의 연구에서는 상호적 친구를 단 1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택했기 때문에, 일반 아동의 35%가 상

호적 친구가 있고,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호적 친구가 있는 경우는 각각 28.5%, 39.3%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상호적 친구 유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인지를 검증한 결과, 수줍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상호적 친구를 유의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친구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신유림(2007)의 연구에서 수줍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상호적 친구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다. 그러나 친밀한 친구 수에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Rubin 등(2006)의 연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상호적 친구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줍은 아동이라고 해도 적어도 일반 아동만큼은 상호적 친구를 가질 수도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적 친구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적 친구가 있는 전체 아동 및 남아와 여아를 나누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사회적 행동특성 중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과 ‘인기도’, ‘수줍음’에서 차이가 나타나,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해 수줍음이 많고, 또래 사이에 인기가 없

으며, 또래 괴롭힘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남아의 경우는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과 ‘수줍음’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 ‘또래 괴롭힘(피해 행동)’과 ‘수줍음’, ‘인기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을지라도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며, 수줍음이 많고, 또래 그룹 내에서 인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 수용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Coie, Dodge, & Kupersmidt, 1990)에 기초해 볼 때, 수줍음을 보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에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과는 다른 사회적 행동특성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Hays, 198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에 비해 상호적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은 공격성이 높고 또래 괴롭힘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박성연, 2009). 이를 통해 수줍은 아동에게 상호적 친구가 있다는 것은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에 비해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일반 아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행동특성은 학급 내 또래가 평가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친하

지 않은 학급 내 또래들의 관점에서는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해 그들의 친한 친구가 지각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에 비해서는 다소 또래 괴롭힘을 받고, 인기가 낮은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연구문제 3인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 질 중 긍정적 기능과 관련된 ‘도움’의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로부터 실제적 ‘도움’을 덜 받았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 중 ‘도움’에서만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일반 아동에 비해 수줍은 아동이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측면인 지원하기, 동료애 및 친밀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신유림(2007)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은 남아나 여아 모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신유림, 2007) 친구로부터 도움을 덜 받는다고 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 기능의 다른 측면이나 부정적 기능,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수줍은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요인인 교제와 오락, 인정과 보살핌, 도움과 충고, 친밀감, 갈등과 배신, 갈등해결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한 선행연구 결과와는(Rubin et al., 2006) 다르다. 또한 친사회적인 아동과 불안·위축적인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교한 연구(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에서 친사회적인 아동은 높은 사회·정서적 지원과 만족감 및 안정감을 느낀 반면, 불안하고 위축적인 아동은 친구의 지원이나 만족감이 낮고 경쟁이 높아 전반적으로 친구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하였다는 결과와도 상이하다. 그러나 아동의 수줍음과 친구관계의 질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다른 선행연구(Fordham & Stevenson-Hinde, 1999)를 지지한다. 또한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과 또래 수용도가 평균이상인 아동 간에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arker & Asher, 1993)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렇듯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친구관계의 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수줍은 아동이 상호적 친구가 있다는 전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줍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낯설거나 새로운 사람,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박성연, 2008)이기 때문에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이미 형성된 그들의 친한 친구관계 내에서는 수줍음과 같은 행동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 질적인 친구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보고에 기초한 것이어서 수줍은 아동의 자기 지각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친구

를 처음 사귀는 상황에서는 수줍음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일단 친한 상호적 친구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 수줍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와의 관계의 질에서 일반 아동과 다르지 않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수줍음과 친구관계 만족에 대한 김미애(2003)의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낮아지고, 부정적 감정은 높아지지만 그 설명력이 각각 3%, 2%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줍음이라는 개인적 특성 이외에 다른 변인이 친구관계 만족을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비롯하여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불일치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와 같이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드물어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종합해 보면,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은 남아, 여아 모두 상호적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아동에 비해 수줍은 아동이 상호적 친구관계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대체로 수줍음이 많고,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가 높고,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졌다. 친구관계의 질은 전반적으로 남아, 여아 모두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이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로부터 도움을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은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호적 친

구의 유무와 같은 양적 측면이나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반 아동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상호적 친구를 가진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해 봄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특성을 밝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자기보고 방식에 기초했으며, 연구 대상자의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수줍음은 외부로 표출되는 특성임을 감안하여 실험연구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줍은 아동의 특성과 친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구관계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보다 역동적인 관계이므로 한 시기에 측정한 것만으로는 친구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 측정하였으므로 친구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측정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한 친구관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 양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고,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애 (2003). 수줍음이 청소년의 친구관계만족 및 친구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경, 박성연 (2009).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6(2), 23-37.
- 도현심, 정승원 (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2), 149-161.
- 문은정, 심희옥 (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박성연 (2008). 아동발달. 교문사.
- 신유림 (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 신주혜 (1998).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 (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해,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225-242.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4), 250-259.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15-45). New York: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ham, K., & Stevenson-Hinde, J. (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Psychopathology*, 40(5), 757-768.
- Hartup, W. W. (1995). The three faces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4), 569-574.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ys, R. B. (1988). Friendship.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 391-408). Chichester, UK: Wiley.
- Hymel, S., Rubin, K.,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2004-2021.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s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al, and aggressive/withdrawal children during early grade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Masten, A. S., Morison, P., & Pellegrini, D. S. (1985). A revised class play method of peer assessment. *Development Psychology*, 21(3), 523-53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 Development Psychology*, 29(4), 611-621.
- Rubin, K. H., Burgess, K., Kennedy, A., & Stewart, S.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pp.372-406). New York: Guilford Press.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im.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43-157.
- 1차 원고접수 : 2010. 08. 27.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3.

Best Friends, So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The Friendship Quality of Shy Children in Comparison to Non-shy Children

Kim, Bo-Gyeong

Dept. of Consumer
an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hn, Jee-Young

The School of
Human Continuing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hy children's friendships compared to a non-shy group. The participants were 96 shy children and 80 control children identified from 415 5th to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both chi-square test and *t*-test. Our results indicated that 1) Shy children had more mutual best friends than non-shy children. 2) Shy children with a best friend reported higher levels of victimization and lower popularity in social relationships than non-shy children. 3) Regarding the issue of the quality of friendships, Shy children with a best friend generally reported similar levels of friendship quality as those non-shy children who had a best friend.

Key words : friendship, shy children, best friend, so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friendship quality